



죽비와 목탁

이냐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장애인 포교에 관심 가져야

11월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명나는 난타공연의 장(場)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지적·발달 장애 어린이·청소년·성인들로 구성된 6개 팀. 모두 전문가의 난타 공연만큼 능숙하게 장기를 발휘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의 사물놀이단이 차지했다.

승가원 사물놀이단처럼 단순한 문화예술 관람이나 프로그램 활동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청각·시각장애인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원심회는 지난 3월 난타공연팀 '두드림'을 창단해 부처님오신날, 21주년 창립법회 등에서 공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는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있는 불자들이 모여 시 쓰기와 시 낭독, 작사에 참여해 음반제작, 시집 발간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청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암화(꽃누름) 공예 교육을 실시, 완성된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예는 많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3-2001)

은 7세 때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고 미술활동에 전념해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으며, 황원교 시인(50)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 문학을 접하고 시를 쓰기 시작, 산문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아니스트 이희아(25)는 선전성 사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네 손가락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인 스티비 원더(60)와 레이 찰스(1930-2004)는 시각장애를 딛고 재능을 발휘, 수많은 곡들을 발표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아오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생활함에 있어 약간 불편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자신의 흥미 또는 관심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도 이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차별을 수용해야 건강한 세상이 된다. 조금 더 불편한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다 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앞서 장애인 포교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 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할 것도 없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 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영석학원 東大 보시 '훈훈'

안채란 이사장 11월 23일 기부합병 협정 조인

평생 일군 교육도량을 조건 없이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한 불자 교육인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학교법인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은 11월 23일 의정부 영석고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영석학원의 동국대와의 기부 합병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정식은 2008년 10월 안 이사장이 영석고의 동국대 기부를 발원하고 약정식을 가진 데 이은 것이다. 약정식 당시 영석고는 학내분규로 관선이사 파견된 상태로 주변에서는 동국대와의 합병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어수선한 학내 상황도 안 이사장의 원력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84세로)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이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내 배움의 터전으로서 내 철학이자 전부인 동국대의 발전과 불교계에 공헌코자 영석학원을 기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장은 "불교가 한국사 회에서 사시 없이 애국하는 데 앞장서고, 103년 전통의 명문사학 동국



기부 합병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가진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

대가 그 선두에 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련 스님은 "부처님은 무주삼보시를 최고의 공덕으로 여겼다"며 "영석고를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안 이사장은 동국대 국문과를 1954년 졸업하고, 행정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서 각각 1973년과 1982년 수학했다. 그녀는 12년 간 동국대 총동창회장 부회장을, 6년간 동국대 이사로 활동한 이력에 더해 '채란장학회' '불교사상연구회' 등

을 설립하며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후배를 도와왔다.

한편, 영석학원이 동국대에 기부한 재산은 의정부 용현동 소재 영석고와 의정부3동의 영석빌딩 등으로 250여 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영석고는 안채란 이사장이 고향인 용현동에 아버지 이름을 빌어 1970년 개교한 학교로 17개 학급에서 600여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훈련소 법당 중창불사 동참"

조계종 균종교구 '군승의 날' 기념법회



11월 27일 하림각에서 열린 제41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삼귀의례하는 사부대중. 오른쪽부터 현성 스님, 자광 스님, 자승 스님, 혜정 스님.

조계종 균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27일 하림각 AW컨벤션센터에서 '제41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열고 육군훈련소 불사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균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현성, 도영, 일면 스님을 고문위원으로, 성타 스님을 비롯한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을 불사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

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회의장 보선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30여 년간 군포교 활성화에 나선 공로로 문위원으로, 성타 스님을 비롯한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을 불사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

글=노덕현 사진=박재원 기자

"세상 이익되게 하는 대들보 되리"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태고종은 11월 26일 서울 법륜사(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불기2553년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교수사(敎授辭)를 통해 "이제 불법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금계(禁戒)를 받고 생사의 나무를 건너 허망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도(道)를 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차인연 공덕으로 계해(戒海)가 맑아져서 중생의 업을 씻어주며 세상을 끌고루 이익 되게 하는 대들보

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계대화상 수진 출사는 "부처님의 교법을 잘 받아서 응당히 힘써 복된 일과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며 수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사미 71명, 사미니 39명 등 총 110명의 스님들이 비구·비구니 구족계를 수계했다. 한편 수계식은 심화상으로 갈마 아사리에 중앙사정원장 월은 스님이, 7층사에는 원봉 청봉 화경 영우 보경 해공 경담 스님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자기 발 밑에서 열반길 찾으라"

12월 1일 동안거 결제... 법전 스님 등 범어

겨울철 운수남자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산문 안에서 참구정진하는 동안거가 12월 1일 결제에 들어갔다.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 2300여 수좌 스님들이 100여개 선원에서 방부를 들었다.

결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방장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법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산승에게 만약 열반문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장 방망이로 등줄기를 때려줄 것이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활을 해서 내뿜을 것"이라며 "각자가 자기 발 밑에서 열반길을 찾으라"고 설법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법어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밥먹고 일하고 쉬고 버릴 때에도 끊임없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나하고 다른 근기의 사람들에게 조사 스님들이 내린 법문을 내게 맞추려 애쓰지 말고, 근기에 맞게 스승에게 탄화두를 곱뽀히 사유해 그 참 뜻을 제대로 알아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무쇠 솥에 넣어 삶아 삼점이 없어지고 홀로 벗어나는 지함이 없어야 비로소 일호(一毫)만큼 점두(點頭)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결제법어를 내렸다.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본래면목 자리는 명상이나 사람으로도 집착할 수 없는 것"이라

며 "동안거를 통해 생사를 영단(永斷)하는 출력장부가 되어 일체무애인(一切無礙人)이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남)하는 대과(大果)를 성취하기를 지도지도(至禱至禱: 간절히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결제법어에서 "중국의 무착(無著)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에 죽을 쭈다가 죽이 넘쳐 솥뚜껑을 여는 순간 죽 거품마다 문수보살 얼굴이 나타나자 크게 깨치고 오도송을 지었다"며 "무착 스님의 깨진 도리를 아는 이가 있거든 한마디 일러보시오"고 물은 뒤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느니라"고 자답했다.

법어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노덕현 기자

조계종 법계위, 고산스님 위원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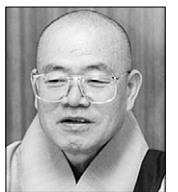
조계종 제5기 법계위원회는 11월 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사진)을 법계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고산 스님은 당초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임시 의장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이 건강상 이유로 고사하며 추천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계위원간사로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을

제선을 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행 심의와 각 위원회 구성, 법계법 등 개정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보성 스님과 고산 스님, 종진 스님과 지성 스님, 무관 스님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만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양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